

# 화려한 피날레 꿈꾸는 닉스고, 마지막 도전

메인 대회인 브리더스 클래식 출전 5번 게이트 배정, 안정적 출발 기대  
에센셜 퀄리티가 우승 최대 라이벌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델마 경마장에서 열리는 '브리더스컵 클래식'에 출전하는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이번 출전은 내년 씨수말 데뷔를 앞둔 닉스고의 브리더스컵 마지막 도전이다.

7일 오전 9시 40분(한국시간), 한국 경마의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미국 '브리더스컵'에 출전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델마 경마장에서 열리는 브리더스컵은 세계 최고의 경주 중 하나로 꼽힌다. 성별, 연령별, 거리별로 각국 에이스 경주마들이 총집합하는 챔피언십이다. 닉스고는 메인 경주이자 마지막에 열리는 '브리더스컵 클래식'(총상금 600만 달러)에 출전한다.

닉스고와 브리더스컵은 인연이 깊다. 2018년 닉스고는 2세의 나이로 브리더스컵의 예선 격인 '브리더스컵 퓨처리티'에 출전해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그 해 열린 '브리더스컵 주버나일'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며 신예 스타로 급부상했다. 지난해에는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에서도 우승했다. 올해 브리더스컵은 닉스고의 세 번째 도전이자 마지막 도전이다.

브리더스컵, 특히 클래식 경주 우승은 엄청난 위상을 가진다. 우선 미국 경마의 일 년을 마무리하는 시상식인 이클립스 어워드에서 올해의 경주마 부분의 가

장 유력한 후보로 오른다.

경주마 은퇴 이후 씨수말 데뷔 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17년 브리더스컵 클래식 우승마 건러너의 경우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 준우승, 이후 휘트니 스테이크스를 포함한 다수의 대상경주에서도 우승했다. 이듬해 페가수스 월드 말 데뷔를 이뤄냈다.

씨수말 데뷔 첫해 건러너에 책정된 교배료는 7만 달러(약 8300만원)로 그 해 171마리의 암말과 교배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166마리와 교배를 진행했다. 자

마들이 뛰어난 성적을 내면서 내년 브리더스 시즌에는 12만5000 달러(약 1억 4800만원)로 확 높아진다.

한편, 올해 브리더스컵 클래식은 세계 최정상급의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한다. 현재 닉스고의 가장 큰 경쟁자로는 같은 조교사 브래드 콕스가 관리하는 에센셜 퀄리티가 있다. 올해 3세마로 지난해 브리더스컵 퓨처리티와 브리더스컵 주버나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도 그레이드급 경주에 여섯 번 출전해 5회의 우승을 달성했다.

올해 켈터키터비 우승마인 메디나 스

피트도 우승후보 중 하나다. 닉스고와 같은 선행에 강점을 보이는 경주마로 레이스 초반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출발 게이트 추첨결과 닉스고는 5번 게이트를 배정받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 상대인 에센셜 퀄리티 4번, 메디나 스프릿은 8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다. 현재 닉스고는 켈터키 처칠 다운스 경마장에서의 훈련을 마무리하고 델마 경마장으로 이동해 마지막 담금질에 집중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우승하며 첫 대상 트로피를 든 아스펜태양과 문세영 기수

## 아스펜태양, 농협중앙회장배 첫 대상경주 우승

아스펜태양(2세, 수, 한국, R41)이 10월 31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승리하며 첫 대상 경주 트로피를 안았다. 이번 우승으로 올해 10월 데뷔한 후 3전 3승을 달성했다. 농협중앙회장배는 주버나일 시리즈 두 번째 관문으로 국산 2세마 9두가 출전했다. 아스펜태양의 박대홍 조교사는 "앞으로 브리더스컵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아스펜태양의 성장속도를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장배를 기념해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혁)은 코로나19로 힘든 경주마 생산농가를 위해 경주마 생산 농가 육성 지원금 3억9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우수한 씨암말 도입 등 국내산 경주마 생산 기반을 위한 사업비로 생산농가에 지원한다.

## 코리아던비 나서는 히트예감... '삼관마 예감?'

(7일)

KRA컵 마일 우승 최고 3세마 주목  
홍바라기·위너스맨 등도 우승 도전

국내산 3세 최고마를 가리는 '코리아던비'(GI, 1800m)가 7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다.

1998년 시작한 '코리아던비'는 국산 3세 우수마를 가리는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의 두 번째 관문이다.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의 세 경주를 모두 우승해 '삼관마'의 영광을 얻기는 무척 어렵다. 지금까지 삼관마 타이틀을 받은 경주마는 2007년 제이에스홀드, 2016년 파워블레이드 2두에 불과하다. 올해는 10월 'KRA컵 마일'(GI, 1600m)에서 우승한 히트예감이 삼관마에 오를 수 있는 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일 레이스에서 주목할 경주마들을 소개한다.

●히트예감(수, 3세, 한국, R91, 승률 88.9%, 복승률 100%)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전부터 최고 3세마로 주목받았다. 10월 KRA컵 마일에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했다. 첫 대상경주임에도 재빠른 출발과 선행력을 보여주었고 직선주로에서 치고나가는 근성까지 갖춰 2위 홍바라기를 1과 3/4마신 차로 제쳤다. 레이팅도 91까지 급상승했다. 서울 원정과 1800m는 첫 도전이다. 원정으로 인한 컨디션 조절과 장거리라는 변수가 있다.

●홍바라기(수, 3세, 한국, R76, 승률 62.5%, 복승률 100%)

KRA컵 마일 준우승마다. 2위 그룹에서 경주를 전개해 직선주로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일반경주에서 보여준 선행 전개와 달리 추밀력까지



과시하며 부산 강지들과 맞서 예상을 깨고 준우승까지 했다. 이번에는 흥인 서울경마공원에서 경주가 열리는 데다 1800m 일반경주 우승경험이 있다는 점이 기대를 모은다.

●치프인디(수, 3세, 한국, R57, 승률 55.6%, 복승률 55.6%)

KRA컵 마일 입상마이다. 종반에 힘을 발휘하며 펄용타임(1F-G)이 13초 1로 출전마 중 가장 빠르다. 체구도 500kg을 넘어 장거리 경주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뷔 때부터 함께 한 문세영 기수가 복귀해 코리아던비에서 호흡을 맞춘다. 테이크차지인디의 자마로, 이번 경주의 우승후보인 히트예감과 형제마이다.

●위너스맨(수, 3세, 한국, R84, 승률 63.6%, 복승률 81.8%)

히트예감과 부경에서 3세마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있다. 역시 500kg이 넘는 거구로, 경주 내내 선두권에 압박을 줄 수 있다. KRA컵 마일에서는 직선주로에서 막판 힘이 빠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기대를 받는 것은 선입과 선행 등 여러 작전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리아던비는 KRA컵 마일보다 200m 길이 막판 지구력 문제를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김재범 기자

## 서울경마공원에 안내 로봇 시범 도입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에 안내 로봇을 시범 도입했다. LG전자의 '클로이 가이 드봇'(사진)을 서울경마공원 개장에 맞춰 운영한다. 클로이 가이드봇은 최첨단 사물인식 기술로 자율주행과 충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음성으로 질의응답과 대화가 가능하다. 고객에게 방역 지침 준수 요청과 길 안내 등 고객 응대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활동 외에 탑재된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로 쉽고 편리하게 관람대 시설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동반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건전화 캠페인, 실시간 경주 정보 등을 소개한다. 함께 사진을 찍거나 로봇이 사진을 촬영해 문자로 전송해 주는 기능도 갖췄다.

편집 | 김대현 기자 bong82@donga.com

## 골프

## “KLPGA 신인왕은 나야”...송가은-홍정민 41점차 박빙

송가은 신인왕 포인트 1993점 1위  
톱10에 7번 진입한 홍정민 뒤이어  
남은 대회 2개뿐...막판 역전 승부

송가은(21)과 홍정민(19)의 포인트 차이는 단 41점.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2021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S-OIL 챔피언십(5~7일·제주)과 SK셀터스·SK텔레콤 챔피언십(12~14일·춘천), 두 대회를 남긴 가운데 신인왕의 주인공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현재 신인왕 포인트 1위는 올 시즌 유일하게 투기 중 우승을 경험한 송가은.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송가은은 1993점으로 순위표 맨 위에 자리하고 있다. 올 시즌 27개 대회에 출전해 21개 대회에서 컷을 통과했고, 우승 1회를 포함해 톱10에 6번 이름을 올렸다.

26개 대회에서 23번 컷을 통과한 홍정민

은 신인왕 포인트 1952점으로 2위에 랭크돼 있다.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7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와 9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톱10에 7번 진입했다.

신인왕과 대상은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대상은 총상금 규모에 따라 매 대회 우승자부터 10위까지에게만 순위별 차등을 두고 점수를 부여하지만 신인왕은 컷을 통과한 선수 전원에게 순위별로 점수를 주고 이를 합산한다.

5일 열린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는 S-OIL 챔피언십의 총상금은 7억 원. 신인이 우승할 경우 포인트 230점을 획득한다. 2위를 하면 120점, 10위를 하면 90점을 받는다. 41위부터 60위까지에게는 똑같이 25점을 준다.

총상금 10억 원인 시즌 최종전 SK셀터스·SK텔레콤 챔피언십은 우승할 경우 310점, 2위를 하면 160점, 10위를 하면 130점을 챙긴다. 41위부터 60위까지는 똑같이

85점이 주어진다.

41점 차에 불과한 송가은과 홍정민의 간격은 나머지 두 대회 결과에 따라 충분히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그야말로 박빙이다. 송가은이 앞서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형국이다. 둘은 나머지 두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우승이 어렵다면 가능한 한 좋은 순위로 대회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

최근 10년간 신인왕 결과를 돌아볼 때 가장 박빙 승부가 연출된 것은 2016년이었다. 당시 신인왕 이정은(625)과 포인트 2위 이소영(24)의 차이는 단 34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유해란(20)은 신인왕을 조기 확정하고 782점 차이로 여유있게 최고 루키에 자리매김했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신인왕 싸움,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을 놓고 송가은과 홍정민이 그야말로 뜨거운 마지막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1라운드 1라운드 티샷을 하고 있는 송가은(왼쪽)과 홍정민. 이 대회 우승자 송가은은 신인왕 포인트에서도 1위에 올라 있다.

사진제공 | KLPGA